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연중 제16주일

제2155호

2023년 7월 23일(가해)



오늘의 미사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마태 13,30)”

▶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 제1독서: 지혜서 12,13.16-19

▶ 화답송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제2독서: 로마서 8,26-27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 복음: 마태 13,24-43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목회장: 이명노(비오)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honolulukcc.org/>



사목 일정

1) 8월 봉성체 안내

8월 봉성체는 8월 17일(목)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7월 23일(일)	오후 4시
7월 30일(일)	오후 4시
8월 06일(일)	오후 4시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하와이 한인 성당

제 9차 성령 세미나 안내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성립 50주년
1974-2024

일어나 짝어와
사도행전 3:6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창립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한 이번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초대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성령 세미나가 2024년 3월 18일(월) ~ 3월 22일(금)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사목위원회

1) 영상 교육 상영 안내(교육분과)

7월 23일(일)	“성경 통독: 창세기 2부”
7월 30일(일)	“성경 통독: 창세기 3부”

- 시간은 9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비자 교리 교육 안내

일시 : 8월 13일 9시(첫수업)

장소 : 예비자 교리실

3)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반찬 판매 합니다.(홈 메이드) ◆

시간: 7월 30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앞

종류: 고사리, 깻잎, 낙지 혹은 오징어 젓갈, 새콤이, 석박지 김치(무우)

수익금 전액은 성당 50주년 준비를 위하여 성당에 도네이션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4) 5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50주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신자 여러분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대상: 전신자

• 시간: 7월 29일, 30일

모든 미사 공지 사항 후

• 발표자 : 조유호 빈첸시오 준비위원장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MYCOMP

컴퓨터 수리 & 교육(그룹, 개인)
김효석(요셉) / 398-9695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1) 명도회 모임

일시: 7월 23일(일) 교중 미사 후(12:00)

장소: 사제관 옆 천막

2) 꾸리아 모임

일시: 7월 30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3) 성령 기도회 모임

일시: 8월 5일(토) 7시 미사 후

장소: 성당



재정위원회

- 2차헌금 안내

Ohana in Christ을 위한 2차헌금:

7/22~23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7월15/16일):\$8,690.26

주일헌금	교무금	특별헌금
\$2,874	\$2,320	\$3,496.26

제대 제작을 위한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김국현 고스마 형제님, 최용철 마태오 형제님,
 김창선 필립보 형제님, 백은진 글라라 자매님,
 조현희 안나 자매님, 고병익 크리스토퍼 형제
 님, 박광선 레오 형제님, 김창옥 엘리샤 자매님,
 김중헌 베드로 총무님, 조유호 빈체시오 형제
 님, 조원임 아가다 자매님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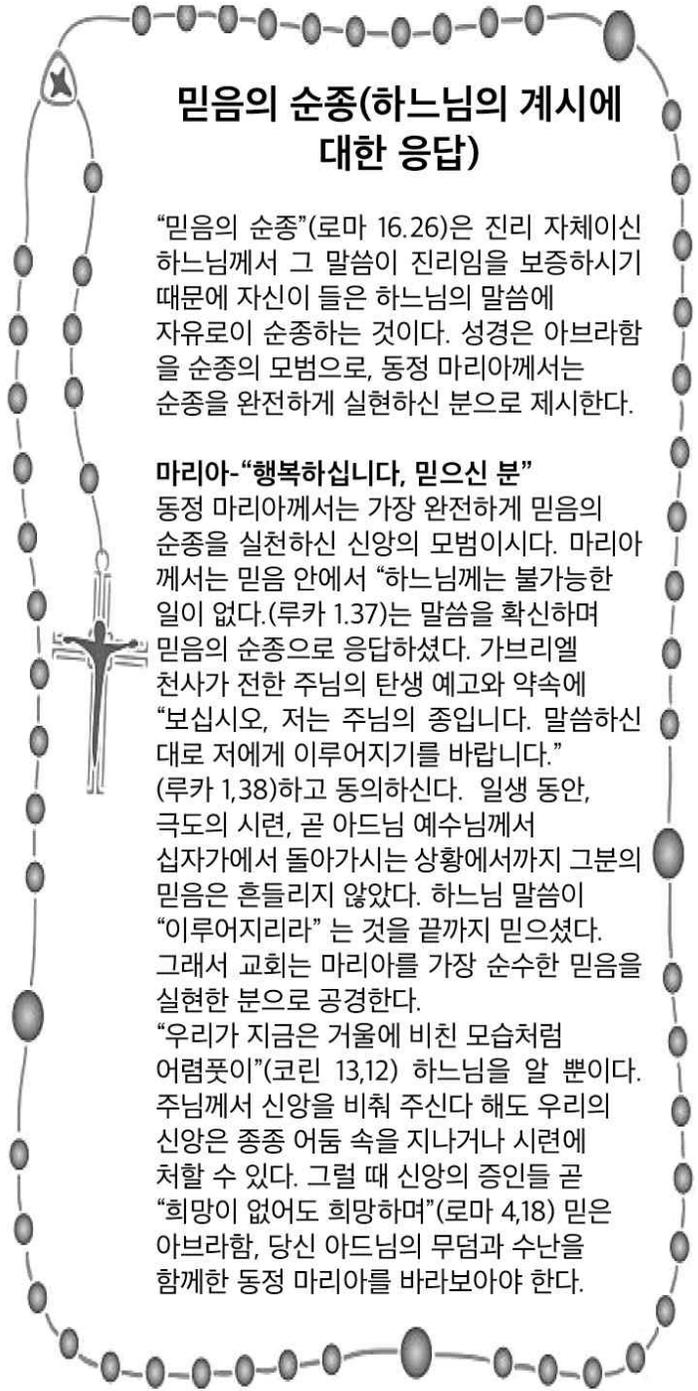
믿음의 순종(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

“믿음의 순종”(로마 16.26)은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유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모범으로, 동정 마리아께서는 순종을 완전하게 실현하신 분으로 제시한다.

마리아-“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

동정 마리아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신 신앙의 모범이시다. 마리아께서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는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주님의 탄생 예고와 약속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하고 동의하신다. 일생 동안, 극도의 시련, 곧 아드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에서까지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는 것을 끝까지 믿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가장 순수한 믿음을 실현한 분으로 공경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렵듯이”(코린 13,12) 하느님을 알 뿐이다. 주님께서 신앙을 비취 주신다 해도 우리의 신앙은 종종 어둠 속을 지나거나 시련에 처할 수 있다. 그럴 때 신앙의 증인들 곧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마 4,18) 믿은 아브라함, 당신 아드님의 무덤과 수난을 함께한 동정 마리아를 바라보아야 한다.



식소영 유자 NMLS# 396147
 Cross Country Mortgage
 Cel: (808) 798-5100
 Email: Shari.shim@myccmortgage.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 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아일랜드 뷔티지 커피
 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무지개 나라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당시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다. 신부들의 만류가 무색하게도 젊고 열심한 교우들조차 시류에 휩쓸려 하와이로 밀려갔다. 1905년 5월 29일, 차이나호를 타고 호놀룰루 항에 내린 강원도 용소막 출신의 임세성 바오로도 그중 하나였다. 산도 물도 설었지만 희망을 약속하던 선명한 무지개만은 고향의 그것과 같아, 하와이에서 조선까지 심정의 다리가 되어 주었다. 교우들은 고향에서 배운 신앙 그대로 하와이의 천주교 사제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톨릭교회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갈 밖에 없었다. 고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우들은 고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천주께 봉헌했다. 순교자의 신앙을 상속받은 후예들답게 둘이나 셋이라도 천주의 이름을 찬미하며 기도를 드렸다.

힘없고 가난한 민족의 운명이란 질곡의 역사 속에서 허무하게 산화하고 마는 게 당연한 걸까. 조국은 대양으로 멀어져간 청춘들을 잊은 게 분명했다. 아니 어쩌면 대한의 이름으로 떠나올때와는 달리, 빼앗긴 나라는 그들을 기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저마다 바다를 건넜으나 궁핍한 조국이 지워지지 않았다. 거친 사탕수수 밭에 찢긴 가슴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한 달 품삯, 미국 돈 15원을 받아들고, 가난한 조국을 먼저 떠올린 그들이었다.

찬미예수 그리스도 무궁지세,
서울 영해원 원장 수녀 전에 두어 자 글월로 문안하나이다. 빈궁한 조선에서 불상한 영해들을 다리시고 당하시는 바 그 귀한 지 곤난이야 오죽 막심하시리이까마는, -중략- 본인은 본디 가난하고 또 간련하여 귀 막은 사람같이 있다가 금년 장림주일을 당하여 잠잠히 생각하오매 미구 불원에 성모께서 베드름(베들레헴) 우양초막(외양간)에서 구세주를 나흐실지

라 작년 잡지에 '성모의 심부름꾼'의 생각이 다시 발하여 이삼인 교우와 함께 상의하고 성모 수녀원에 무엇을 보내어 고아들을 도와 주고져 할 새, 어떤 교우 익명씨가 미금 20원을 내니, 심히 반갑사이다. 이 교우는 일가 삼인이 령세 입교한 지 오래지 아니하되, 열심 수계하며 성모의 수도원을 간절히 사랑하여 빈핍한 중에 20원을 내였사오며, 시몬 김화경씨가 미금 5원을 내고, 전 헬네나 부인이 1원을 내고, 또 익명씨가 미금 5원을 내어, 합 31원을 귀원에 올리오니 차지사, 금년 예수성탄에 나무나 사서 영해들의 추위를 면케 하시며, 성모님의 성심을 즐겁게 하 시옵소서. 운운. 내내 성모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샤 안녕히 지내시옵소서. 천주강생 1920년 11월 장림 주일, 호놀룰루에 류하는 바오로 림세성 배상 (『경향잡지』1921년 1월호)

서울 고아원에 보낸 미국 돈 31원은 피와 땀과 그리움의 값이다. 그해 성탄절에는 환전한 우리 돈으로 마련한 장작이 영해들의 가슴까지 훈훈하게 지피지 않았을까. 아궁이에서 피어난 연기가 제단의 향기로운 분향처럼 하늘까지 이르러, 사탕 밭의 미국 돈은 헤아릴 수 없이 후한 값에 천국의 보화로 환전되었을 것이다. 첫 이민자에게 광고가 유혹한 풍요는 없었을지언정 우리의 교우들은 먼 이국에서 천국의 보화를 벌어들였다.

무더운 오늘, 성지에도 소낙비가 내리려나 한다. 비가 그치고 천주의 약속대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하와이의 맑은 하늘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조국을 그리던 그 옛날 임바오로, 김시몬, 전헬네나 그리고 익명의 교우들을 기억할 것이다.

글쓴이: 김성태 요셉 신부(생활성서 발췌)

본당 설립 50주년 목주기도 봉헌
7월 16까지 집계된 목주기도 봉헌은
총 164,087단 입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선 / 599-9810, 592-5011
모지매매
모지: Hawaiian Memorial Park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이계옥 카타리나 / 808-222-0326

SAS Ala Moana
사스 공인 딜러
김 퀴리노 / 955-9500
Young Law Group LLC.
한국, 미국 변호사 그룹
상법, 계약법, 상속, 이민
808-591-0722 / 이재영

해피약국
처방약, 한국약, 무료배달
김 퀴리노 / 955-9500
모지매매
모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